

19세기 후기 여성 속옷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omen's Underwear in the late 19C

Abstract

1. 서론

2. 사회적 배경

3. 시대적 이상미와 겹옷의 형태

3-1. 크리놀린 시대(1850년-1870년)

3-2. 벅슬 시대(1870년-1890년)

3-3. S자형 시대(1890년-1910년)

4.

4-1. 크리놀린 시대(1850년-1870년)

4-2. 벅슬 시대(1870년-1890년)

4-3. S자형 시대(1890년-1910년)

5. 결론

그 시대의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상황과 이상적인 인체미를 파악하고, 각 시대의 양식 변화를 이루는 속옷 형태를 분석하여, 어떻게 겹옷이 형성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는 인체에 가장 밀접한 기본적인 속옷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남·여성의 성 역할과 의복의 변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19세기 후반을 연구 범위로 하여 복식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는 것을 연구의 의의로 둔다.

결과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는 코르셋과 패셔너블한 드레스를 착용했으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미약하나마 속옷의 부피가 감소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속옷은 이상미에 따라 겹옷과 함께 이상미를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and structure of underwear. Scope of this research is late 19C. This paper results as follows:

1. When women's social and economic status was subjected to men, women had worn corset and fashionable dresses.
2. According to those movements, the ideal beauty had changed little in the same sort emphasizing on bust and hip.
3. Structure method of underwear changed by ideal beauty and shape of outer garment.

* Key Words: ideal beauty, corset, hoop(petticoat)

1.

속옷은 내적·외적으로 겉옷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그 시대의 이상미를 반영하는 겉옷의 형태미를 나타내기 위한 기본이 됨과 동시에 내적 자아표출의 은밀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시대의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상황과 이상적인 인체미를 파악하고, 각 시대의 양식 변화를 이루는 속옷 형태를 분석하여, 어떻게 겉옷이 형성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는 인체에 가장 밀접한 기본적인 속옷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라 이에 관한 연구를 하여 복식에 관한 근본적인 이해를 더하는 것에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범위는 남·여성의 성 역할과 의복의 변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19세기 후반으로 두고, 첫째, 사회적인 배경과 여성의 지위·역할 변화를 고찰한 후, 둘째, 이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서 이상미에 따른 겉옷을 분석한 후 셋째, 이를 표현하기 위한 속옷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비교·고찰함으로써 겉옷과 속옷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각종 문헌자료, 도판, 사진 등을 통해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속옷의 기능인 실용성, 인체의 교정과 변형, 심미성(장식성)중 이 시기의 대표적 특징인 교정(reform)과 변형(transform)에 기본을 두어 코르셋과 후프(크리놀린, 벅슬, 페티코트 등)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사회적인 배경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의 최성기와 아닐린 염료와 재봉틀 발명 등의 과학 기술 발전, 오프 꾸뛰르의 창시 등은 중요한 복식발전을 가져왔다. 남성의 복식은 간단해지고 실용적으로 되어간 반면, 여성의 복식은 더욱 장식적이고 색상이 다채로워졌다. 즉, 남편에게 종속된 생활을 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부(副)와 지위를 복식에 나타내었으며, 장식적인 성(性)으로서 간주되었다. 경제권이 없는 여성들은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 남성들에게 선택되어야 했고, 여성들에게 주어진 도덕성, 정숙성은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게 하였다. 따라서 도덕성, 정숙성이 부과됨에 따라 구속적이고 존경받는 여성다운 이미지와 장식적이고

정교한 속옷은 대조를 이루었다. 이에 속옷은 외적으로는 실용성, 장식성과 함께 당대의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해 인체를 변형시켰고, 내적으로는 성적인 자기 자극의 한 방법이었으며 도덕성에 대한 도전으로 에로틱하고 관능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동시에 이러한 복식을 반대하는 유태주의와 이성주의 복식, 여성들의 교육 증가와 고용, 사회적 권리 등은 여성들의 해방에 첫발을 내딛게 했고 복식을 간소하게 했지만 여전히 허리는 가늘고 스커트는 길었다. 또한, 중산층 여성에 대한 교육과 고용이 있다 해도 오로지 미혼 여성이었고, 단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층이었으며, 상류층과 중상층 여성들은 별 노력 없이 쉽게 지위를 얻었다¹⁾. 즉, 세기의 전환점에서 여성의 해방과 의복 개혁에 대한 시도는 제한된 성공을 거두었다.

3. 시대적 이상미와 겉옷의 형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른 시대적인 이상미와 이를 나타내기 위한 속옷을 연구함에 앞서, 겉옷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행해져 왔으므로 간단히 실루엣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19세기가 끝날 때까지 가슴과 힙을 강조하는 이상미는 같은 종류로 약간의 변형만 가졌다²⁾. 즉, 은폐와 노출을 통해 가슴과 힙의 강조점이 교차되는데 이는 관능과 에로티즘을 잘 드러내는 것이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성역할을 볼 수 있다.

3-1. 시대(1850년-1870년)

이 시대의 이상적인 인체미는 에로틱한 여성형이다. 전 시대의 아우워 클래스형이 더욱 심해져 풍만한 가슴과 거대한 힙, 가는 허리, 길지 않은 상체가 이상적이었다. 따라서 이 이상미를 지니기 위한 크리놀린 스타일은 풍만한 가슴과 가는 허리를 코르셋으로 조이고, 스커트는 크리놀린과 페티코트의 착용으로 최대한 부풀리는 것이었다[그림 1].

꼭 맞는 바디는 뼈대를 대고 어깨주위는 장식깃(bertha)을 하던지 드레이프했다. 허리는 타이트하고 앞허리에서 약간 예각으로 만나게 하여 가는 허리로 보이도록 했으며, 실제 허리선보다 약간 높았다.

팔꿈치까지 타이트하고 손목까지 원추형으로 퍼진 파고다 소매가 인기 있었으며, 비숍 소매와 가브리엘 소매가

1) Elizabeth Rouge, *Understanding Fashion*, (London : Blackwell Science), 1989, pp.131-135.

2)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131.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넓은 소매는 상대적으로 허리를 가늘어 보이게 했다. 타이트 소매는 너무 꼭 끼어서 움직임을 제한했으며 여성들의 수동적인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크리놀린 스커트는 1850년대는 반원형이었지만, 1860년대 초에는 앞이 납작하고 뒤가 퍼진 깔때기형의 고어드 스커트로 바뀌었고, 밑단은 넓어져 곡선이 직선으로 되었다[그림 2]. 이렇게 앞이 편평해지고 후프의 넓은 원이 뒤로 갔다는 것은 이미 벗슬 스타일을 향한 시초라고 볼 수 있다³⁾. 스커트에는 레이스, 프릴, 주름, 플라운스, 리본, 꽃, 벨벳 밴드 등으로 장식되어졌고, 후에는 자수나 기하학적 패턴이 수놓아지기도 했다.



[1] 크리놀린시대 이상미



[그림 2] 1860년대 깔때기형 스커트

3-2. 시대(1870년-1890년)

벗슬 시대에는 가슴은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위로 치켜 올려 졌고, 가늘고 잘록한 허리, 과장되게 부풀린 힙

3) Elisabeth Ewing, Dress & Undress, (London: B.T. Batsford), 1978, p.77.

(hip), 벗슬 장식을 위한 넓은 뒷모습의 루벤스 타입이 이상미였다⁴⁾[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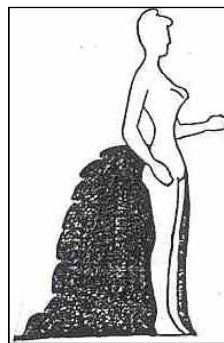
따라서, 이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벗슬 스타일은 허리를 타이트 레이싱(tight-lacing)으로 최대한 졸라 매고 벗슬로 힙 뒤를 부풀렸다.

바디스는 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꼭 맞았고, 뼈대를 대었으며, 1876년 긴 허리를 지나 힙까지 타이트한 큐래스 바디스(cuirasse bodice)가 나왔다⁵⁾. 여성들은 17-18인치에 가는 허리를 유지하기 위해 타이트 레이싱으로 코르셋을 졸라 매었고 다른 어느 시기보다 가느다란 허리에 대한 추구가 심했다.

소매는 타이트 소매가 일반적이었고 바디스와 다른 색을 조화시키는 이상한 스타일이 나타났다. 색채와 소재 역시 기이한 배합으로 여러 다른 소재나 색상을 옷 한 벌에 사용하거나, 과다한 주름, 플라운스, 프린지, 트리밍이 모든 가장자리에 장식되었다.

벗슬 스커트는 1868년 처음 나타났다. 초기 스타일은 스커트 단이 넓고 뒤로 트레인이 길게 퍼지다가[그림 4], 1880년대 중반은 힙이 90도가 될 정도로 돌출 되었으며, 이후 트레인이 사라지고 차츰 부피가 줄어 1890년에는 거의 사라졌다.

이 시대의 모든 흥미는 스커트 뒤에 있었다. 스커트의 앞은 타이트한 평면이고, 뒤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드레이프지고 장식되어졌다. 주름잡은 언더 스커트 위에는 개더로 잡아 올린 오버 스커트를 입었으며, 레이스, 플라운스, 주름 등의 다양한 장식이 이루어 졌다.



[그림 3] 벗슬시대 이상미



[그림 4] 1870년대 벗슬스커트

4) R. Broaby-Johansen, Body & Clothes, (NY: Reinhold Book Co.), 1968, p.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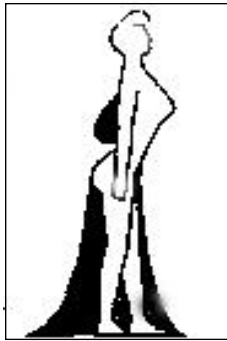
5) Alison Gernsheim,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NY: Dover Publication), 1981, p.62.

3-3. S 시대(1890년-1910년)

전 시대의 관심의 초점이었던 힙은 가슴으로 돌아왔다. 이 시기는 가슴이 성숙한 여성이 이상적인 모델로, 이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해 가슴은 바스트 임프루버(bust improver)로 부풀리고, 코르셋은 복부를 압박하여 납작하게 하였으며, 힙에 작은 패드를 대어 S자형을 나타내었다 [그림 5].

1890년경부터 과장된 소매는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게 하였고 플레어진 스커트는 전형적인 아우워 글래스 스타일이었다. 1897년경부터 가는 허리, 납작하게 눌린 배, 앞으로 기울어진 하나의 가슴(mono-bosom)과 돌출된 하나의 힙(mono-buttock)은 S자형으로 균형을 이루었다⁶⁾ [그림 6].

스커트는 고어 혹은 플레어로 주름 없이 부드럽게 떨어졌다. 힙은 몸에 맞고 도련으로 갈수록 스커트 단이 넓어져 중형으로 바닥에서 길고 우아하게 플레이었으며 외출복에도 트레인이 달렸다.



[5]S자형 시대 이상미



[그림 6] 1900년대 복식

4.

어느 시기든 속옷은 그 기능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⁷⁾.

첫째, 본질적으로 실용적인 것으로, 쉬프트(shift), 셔츠, 드로워즈(drawers), 팬티 등이 이에 속하며, 체온 유지와 보호, 위생적인 목적으로 쓰인다.

둘째, 인체를 교정하는 것으로, 브래지어, 코르셋, 파운데이션 등이 속하며 몸을 압박함으로써, 인체를 재분배, 축소,

확대한다.

셋째, 어떤 장치를 이용하여 인체를 변형시키는 것으로 정상적인 인체와 연관이 없다. 과딩 게일, 후프, 벅슬, 패딩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심미적인 감각이 있는 것으로, 속옷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매우 장식적이며 레이스와 리본으로 장식한 란제리가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인 교정과 변형에 기본을 두어 인체를 축소, 확대, 변형시킨 코르셋과 후프(크리놀린, 벅슬, 페티코트)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 크리놀린 시대(1850년-1870년)

코르셋은 19세기 중반부터 형태와 구조의 변화를 지속하였다. 그것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고, 쇼킹하며, 외설스럽기까지 하다. 특히 빅토리아와 에드워드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속옷은 코르셋으로, 에로틱한 어필을 허리를 조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위로 도발적으로 돌출시켜 한 쌍의 술잔 같았다. 여성들은 코르셋으로 억압된 관능성을 표출할 뿐 아니라 원하는 형태를 나타낼 수 있었다. 의사들은 불임, 갈비뼈와 척추의 변형, 호흡 곤란 등을 설명하며 코르셋의 위험성을 상기시켰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그 내용은 여성들이 자주 보는 대중 잡지가 아닌 전문잡지에 실렸다.

크리놀린 시기의 코르셋은 길이가 짧고, 전·후 시기보다 허리 조임이 덜 극단적이었으며, 스커트의 넓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허리가 가늘게 보여 허리를 줄라매는 타이틀레이싱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⁸⁾.

1840년대부터 신축성 있는 코르셋이 나왔으며, 코르셋에 거셋(gusset)을 넣어 가슴이나 힙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그림 7)처럼 여러 조각을 합쳐 인체에 맞게 재단한 것이 유행하였다. 코딩(cording)과 퀴팅(quilting)이 유행하였으며, 끈을 넣어 같이 바느질하는 방법은 새로운 기법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다. 1855년에는 어깨끈 없는 코르셋이 고안되었고 버클로 된 버스크가 소개된 뒤로 코르셋의 스타일이 변화되어 앞에서 여미고 뒤에서 끈으로 조였다 [그림 7].

1860년대 후반에는 버스크와 고래수염이 함께 바느질된 코르셋을 풀을 먹이고, 구리에서 증기로 말려 뽀뽀하게

6) Anne Hollander, op.cit., pp.151-152.

7) Koichi Tsukamoto, The Undercover Story, (New York : FIT), 1982, p.6.

8) Alison Gernsheim, op.cit., p.45.

하여 형태를 고정시켰다. 색채는 흰색이 가장 우아하였으나, 회색, 빨강, 검정도 실용적인 이유로 쓰였고,⁹⁾ 소재는 면, 꾸뮐(coutil), 실크, 진(jean), 새틴 등이 쓰였다.

1860년, 가슴에 대한 인공 보조물의 흥미가 증가하여 부풀린 ‘인공 가슴’에 대한 특허가 있었고, 뒤이어 다양한 스타일과 사이즈의 ‘가슴 패드(bust pad)’, 셀룰로이드와 고무로 된 ‘가슴 형태(bust shape)’, ‘레몬 가슴(lemon bosom)’등을 코르셋안에 넣어 가슴을 부풀려 보이게 했다.

다음은 후프인 크리놀린에 관해서이다. 철로 만든 새장 모양의 크리놀린은 1856년에 소개되었다¹⁰⁾. 이것은 무겁고 뻣뻣한 여러 개의 페티코트를 하나의 가벼운 크리놀린으로 대체하여 가벼웠으며¹¹⁾, 유연한 강철 후프로 만들어져 조금이라도 누르면 금방 한쪽이 올라가 좌우로 흔들리는 새로운 효과로 남성들을 유혹하였다. 이 교묘한 고안물 역시 여성의 정숙성을 어기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따라 요청 같음, 짜증스러움, 즐거움, 에로티시즘을 느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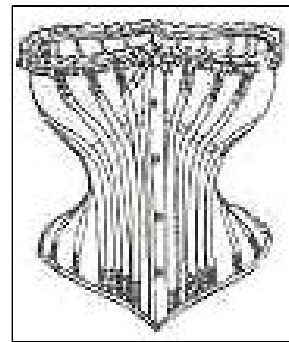
크리놀린은 스커트 형태에 따라 달라졌다. 1850년대 스커트가 반원형일 때는 크리놀린도 반원형이고[그림 8], 1860년대 초에 앞이 편평하고 뒤가 퍼진 깔때기 형일 때는 크리놀린도 그러했다[그림 9]. 크리놀린의 소재는 강철, 고래수염뿐 아니라 ‘Sanflectum’의 크리놀린 후프는 고무로 덮여 있어 세탁이 가능했고, 후에는 수축 가능한 것도 나왔다.

크리놀린 시대동안 스커트를 부풀리기 위해 많은 페티코트를 겹쳐 입는 것이 불필요했다. 그러나, 1860년대에 겹스커트 자락을 들어올리는 폴로네에즈형이 부활되었을 때는 그들의 환상적인 페티코트를 보여주기 위해 정교한 장식의 페티코트가 나왔다. 플란넬(flannel), 타프타(taffete), 알파카(alpaca)등이 소재로 쓰였으며, 종종 대조적인 소재로 선을 두르기도 했다. 1856년의 아닐린 염료의 발달로 컬러 페티코트가 유행했으며, 퍼플, 스칼렛, 마젠타와 같은 밝은 색상이 사용되었다. 1859년 이후 발목이 보이는 스커트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컬러 스타킹이 발달되었으며, 스타킹의 무늬는 페티코트와 조화를 이루었다.

여성들은 주로 면이나 리넨으로 된 슈미즈와 드로워즈 입을 후, 그 위에 페티코트와 코르셋을 입었다¹³⁾. 슈미즈

는 1860년대 이후, 목둘레와 소매둘레에 레이스와 자수 장식을 함으로써 더욱 매력적이 되었다.[표 1 하단, 左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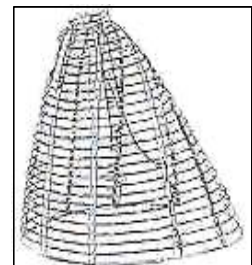
바지형의 드로워즈는 이전에는 매춘부나 시기를 앞서가는 궁정 부인이 스틸과 에로틱한 자극을 위해 입었으므로 비정숙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스커트 안으로 통풍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건강에 안 좋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속옷이나 바지 착용의 중요성이 제창되면서 1850년 이후는 드로워즈를 입는 것이 필수가 되었고 정숙한 것으로 여겨졌다¹⁴⁾. 드로워즈는 허리에 개더가 들어가고 뒤가 트여 끈으로 묶었으며, 매우 섬세한 린넨 소재를 썼다.[표 1 하단, 左②]



[기 버클, 앞여밈, 여러 조각으로 재단한 코르셋]



[그림 8] 1850년대 반원형 크리놀린



[그림 9] 1860년대 깔대기형 크리놀린

4-2. 시대(1870년-1890년)

벚꽃 시기의 코르셋은 허리 조임이 잔혹하고 극에 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코르셋이 가슴을 받쳐주고 변형된 복부로부터 내장을 보호해 준다고 믿어 목욕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코르셋을 착용하였다. 그때까지도 어떤 사람들은 코르셋을 반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내

9) Elizabeth Ewing, op.cit., p.76.

10) Alison Gernsheim, op.cit., p.27.

11) R.Brody-Johansen, op.cit., p.187.

12) Gisèle D'assailly, 1000 Dessous, A History of Lingerie, (Köln:TASCHEN), 1988, p.188.

13) Nancy Bradfield, Costume in Detail, (Boston : PLAYS Inc.), 1983, p.249.

14) Caroline Cox, Lingerie, (Boston, PERIPLUS), 2000, pp.90-93.

릴 수가 없었다.

1860년대 말 크리놀린이 사라지면서 ‘타이트 레이싱’이



[10]코르셋(타이트 레이싱)

유행하여 17인치-21인치, 심지어 14인치-15인치의 가늘고 잘록한 허리가 이상적이었다[그림 10]. 여성들은 억압된 관능성에 대한 표출과 타이트 레이싱에 관련된 희열로 불편함, 신체의 변형, 부작용과 영원한 장애 등의 고통을 견뎠다¹⁵⁾. 이에 무겁고 인체를 변형시키는 복식에 관한 여러 반대 운동이 있었으며, 의복 개혁에서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고래 수염과 꾸밈의 받침 없이 가슴을 지지하는 가였다. 이에 대해 가슴과 복부에 해가 없이 가슴을 지지해주는 가슴 썬포터(bust supporter)에 대한 특허가 1863년 처음 있었으며, 후에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것뿐만 아니라 자세 문제, 걸음까지 지지해주는 가슴 썬포터가 연이어 특허를 받았다¹⁶⁾ [표 1 가슴 썬포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타이트한 코르셋이 착용되었다.

1870년대 코르셋의 뾰뻗은 버스크는 더 심해지고, 큐레스 바디스가 유행함에 따라 가슴에서 힙까지 인체의 곡선을 타이트하게 맞추기 위해 수많은 너치와 시집이 필요하기도 했으며 1880년대에는 타이트 레이싱이 극치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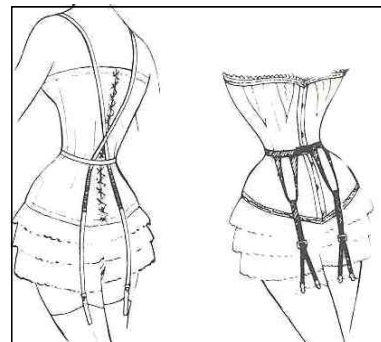
이 때의 코르셋은 더 길어지고 ‘스폰형 버스크’가 나타났으며, 20개의 패턴 조각과 각 패턴마다 16개의 고래뼈가 사용될 정도였다. 대부분의 코르셋은 흰색, 회색, 검정색이

였으나, 종종 금색, 푸른색, 호박색 등이 사용되었다¹⁷⁾.

코르셋은 너무 타이트해서 구부릴 수 없을 정도였는데, 그 위에 서스펜더(suspender)가 벨벳형[그림11, 左] 혹은 벨트형[그림11, 右]으로 코르셋 위에 입혀져 인체를 더욱 압박했다. 그러나, 서스펜더는 가터 벨트(garter-belt)를 대신할 뿐 아니라 스타킹의 흘러내림을 방지했으며, 1901년이 되어서야 코르셋에 부착된 서스펜더가 나왔다.

이 시기 코르셋의 종류는 다양했다. 승마용, 댄싱용, 수영용 등 모든 경우에 착용하는 코르셋이 있었으며, 소재는 꾸밈, 새틴, 저지, 머슬린, 울, 가죽, 네인숙(nainsook) 등으로 다양했다¹⁸⁾. 코르셋 위에는 목둘레에 레이스 장식된 코르셋 커버(camisoles)를 입었는데, 낮에 입는 것과 밤에 입는 것은 겉옷에 맞추어 목둘레의 높낮이와 소매길이에 차이가 있었다.

1885년, 인공 가슴은 양가죽, 새틴, 인디안 고무 소재로 다분히 페티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인공 가슴 형태의 선호도 조사에서 2/3은 사과형을, 1/3은 배형을 선택하여 19세기 초 남성의 선호도와 20세기 후반 여성의 선호도가 같았다¹⁹⁾. 이 결과로 이 시기에는 좀 더 풍만한 가슴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1]좌: 벨벳형, 우: 벨트형 서스펜더

다음은 후프인 벗슬에 관해서이다.

초기의 벗슬 스타일은 스커트 뒤를 부풀리기 위해 후프가 뒤에만 있는 ‘반 후프 강철(half hoop steel)’의 ‘크리놀렛’을 입거나[그림12], 층층이 플라운스가 달린 벗슬을 입었다[그림13]. 말총이나 튼튼한 면모 교직물의 흰색 페티코트가 유행하였으며, 이브닝 페티코트는 플라운스, 주름, 자

15)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NY: Routledge), 1994, pp.123-124.

16) Jane Farrell-Beck, Laura Poresky, Jennifer Paff, Cassandra Moon, Brassieres & Women's Health from 1863-1940, C.T.R.J. 1998, #3, pp.107-109.

17) Elizabeth Ewing, op.cit., pp.80-82.

18) R.L.SHEP, CORSETS: A Visual History, (CA : R.L.Shep Mendocino), p.6.

19) Béatrice Fontanel, Support & Seduction, (NY: Harry N.Abrams), 1997, pp.66-69.

수, 레이스 장식이 더욱 심했다. 또한 파리에서 온 새로운 크리놀렛은 단추를 푸르면 강철만 남아 세탁이 가능하였다.

벗슬은 좁아지고 길어지다가 1876년 사라지고 1882년 재등장했을 땐 더욱 과장된 형태로 되돌아왔다. 오버 스킷트 안에 후프나 패드를 매달아 hips를 부풀리거나²⁰⁾, 플라운스된 페티코트를 입고 그 위에 고래수염, 강철, 등나무 줄기로 만든 바스켓(basket)이란 틀을 입어 hips의 돌출이 수직에 이를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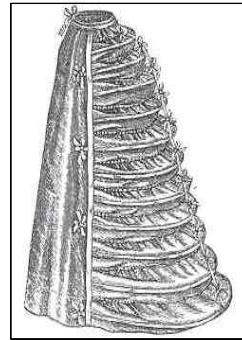
1880년대의 벗슬은 ‘과학적인 벗슬’, 등뼈에 악영향이 없다고 선전하는 ‘건강 벗슬[그림14], 입고 앉으면 위로 올라가고, 서면 자동적으로 내려가는 ‘랑그트리(Langtry) 벗슬’ 등으로 개선되어 재등장했다[그림15]²¹⁾. 또한, 이전에는 속옷에 ‘건강’개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나 1880년대부터 속옷의 구조나 소재에서 ‘건강’을 고려한 것들이 개발되고 있었다.

세탁 가능한 고급 실크가 유행했고, 레이스와 자수로 더욱 장식적이 되었다. 또한 건강 소재에 대한 인기로 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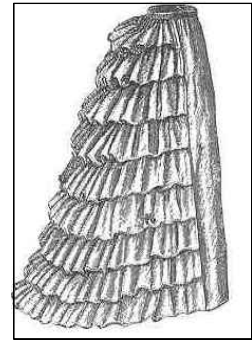
텍스(Aertex), 비엘라(Viyella) 등이 개발되었으며, 울(wool)로 된 속옷이 건강에 가장 좋다는 불편한 이론이 있었다. 1878년 Dr. Jaeger는 울로 된 옷을 입음으로써 안 좋은 건강, 비만, 소화불량 등의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치료 효과를 봤다는 10년간의 연구를 발표했다. 모든 소재는 순수한 동물 섬유인 울로 이루어져야 하고, 심지어 포켓, 안감, 모자, 부츠 등도 울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그러나, 울이 다른 어떤 소재보다도 시원하다고 주장했으나, 울로 만든 속옷을 입고 테니스와 여름산책을 나갔던 사람들이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²³⁾.

한편, 1870년대 중반이후, 큐래스 바디스에 맞춰 드로워즈 역시 부피감이 줄었다. 또한 드로워즈와 슈미즈를 합친 콤비네이션이라는 새로운 속옷이 나타나(1877년), 속옷의 부피감을 더욱 줄이고 당시의 요구되는 인체에 밀접한 형태를 hips 아래까지 표현할 수 있었다[표 1하단, 中]. 이 콤비네이션은 기존의 슈미즈, 드로워즈와 경쟁적으로 사용되었고, 1888년에는 바디스와 페티코트[표 1하단, 右] 혹은 바디스와 드로워즈가 연결된 새로운 콤비네이션이 나타났다

다. 소재는 린넨, 플란넬, 먼 메리노 울 등이다. 드로워즈는 1880년대에 니커(knicker)가 되었으며, 소재는 세틴, 플란넬이 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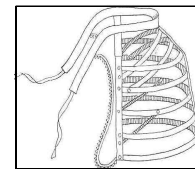
[12]1870년대; Half-hoop Crinolette



[그림 13] Longcloth Under Petticoat



[그림 14]과학적 벗슬



[그림15]랑그트리 벗슬

4.3. S 시대(1890년-1910년)

가슴과 복부를 똑바로 하기 위해 덴 버스크와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hips를 뒤로 내민 새로운 직선형 버스크(new-straight busk)는 S자형으로 인체를 변형시켜 척추만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그림 16]. 이에 ‘건강’에 대한 요구로 임신시의 위험성, 수유를 고려한 가슴 썬포터가 1894년 특허를 받기도 했으며, 인체 압박을 덜하는 유방 썬포터(breast supporter)가 연이어 특허를 받았다.

1890년대에는 고래 뼈대 대신에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넣은 코르셋이 개발되었고, 소재도 저지(jersey) 같은 신축성있는 유연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S자형 시대의 코르셋은 가슴 부분이 점점 짧아져 가슴을 덮을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후에 브래지어가 필요하게 됨). 따라서 가슴을 부풀리기 위한 ‘바스트 임프로버(bust improver)’는 코르셋안에 착용하였는데 1887년에는 철사로 컵 모양을 만들었고, 1890년에는 유연성있는 셀룰로이드로 만들고 패드를 넣었다[그림 18,19]. 이 위에 착용한 끈과

20) Nancy Bradfield, op.cit., pp.251-254.

21)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NY: Thames Hudson), 1995, p.198.

22) Elizabeth Ewing, op.cit., pp.96-98.

23) Alison Gernsheim, op.cit., p.71.

뼈를 댄 ‘바스트 바디스’는 가슴을 지지하고, 하나의 가슴을 만드는데 효과적으로 가슴 사이의 골을 찾아볼 수 없었다[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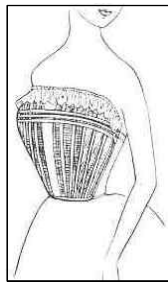
1906년 프린세스 스타일은 너무 타이트하여 기존의 코르셋과 코르셋 커버까지 입을 여유가 없었다. 이에 가슴 부위가 내려간 코르셋과 가슴 씨포터를 입었는데, 그동안 가슴 밴드, 가슴 거들(bust girdle), 엠파이어 숏 스테이(empire short stay), 반도(bandeau)라 불리던 것이 브래지어라 명하게 되었다²⁴⁾.

이 시기의 속옷은 이전보다 더욱 환상적이고 에로틱한 단계로 발전하였다. 가슴 주위에 프릴과 많은 레이스 장식을 하고, 레이스 자수가 바닥까지 소용돌이쳤으며, 이 젠 레이스를 입어도 비도덕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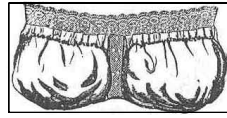
이 시기의 스커트는 바닥에 길게 끌려 걸을 때 치마 자락을 들고 걸었으므로 레이스 프릴장식을 한 켈러 페티코트가 인기 있었다. 페티코트의 허리 앞부분은 편평하게 하고 허리 뒷부분은 플리츠로 부풀렸으며 무릎부분은 절개선을 넣어 부풀리고 밑단은 레이스와 프릴로 플레이지도록 하였다. S자형을 나타내기 위해 힙에는 작은 패드를 대기도 하였으며, 허리는 맞고 바닥으로 갈수록 넓어졌다[그림 20]. 소재는 얇은 삼베(cambric), 바티스트(batiste), 실크, 새틴, 모아레(moirette) 등이 쓰였는데 전 시기의 린넨, 면에서 실크, 레이스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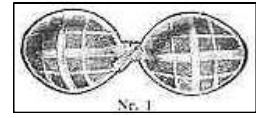
[16]서스펜더 달린 코르셋



[그림 17]바스트 바디스



[그림18]바스트 임프루버



[그림 19] 바스트 임프루버



[그림 20] 페티코트, 바스트 임프루버, 힙 패드

[표 1]은 윗 글의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겉옷과 속옷의 형태적인 관계이다. 크리놀린 시대에는 슈미즈와 드로워즈를 착용한 뒤 코르셋으로 조이고 후프 스커트 단을 넓혀 아우워 글래스 형의 이상미를 표현하였다.

벳슬 시대에는 슈미즈와 드로워즈가 합쳐진 콤비네이션으로 속옷의 부피가 감소하였으며, 건강에 대한 추구로 소재 뿐만 아니라 가슴 씨포터도 특허를 받았으며 다양한 벳슬 기구가 개발되었다. 이 시기에는 코르셋을 타이트 레이스링으로 졸라 매고 벳슬을 착용하여 힙 뒤를 부풀려 이상미를 표현하였다.

S자형 시대에는 모든 속옷에 레이스와 프릴 장식이 가해졌다. 슈미즈와 스커트 니커가 합쳐진 콤비네이션을 착용한 위에 코르셋을 착용하여 복부를 누르고 가슴은 바스트 임프루버로 부풀리고 바스트 바디스를 착용하여 가슴 골이 없는 하나의 가슴을 표현하였다. 페티코트 위에는 힙패드를 매달아 힙을 돌출시켜 앞으로 기울어진 가슴과 함께 S자형을 표현하였다.

24) J.Farrell-Beck, L.Poresky, J.Paff, C.Moon, op.cit., pp.105-109.

25) Elizabeth Ewing, op. cit., pp.105-115.

		1850년-1870년	1870년-1890년	1890년-1910년
겉 옷 (이상미)				
속 옷	코르셋			
	크리놀린 벗슬			
	페티코트			
	가슴 씨포터 바스트 바디스 바스트 임푸르버			
	슈미즈 드로워즈			

[표 1] 이상미를 나타내기 위한 겉옷과 속옷의 형태적인 관계

5.

속옷은 내적·외적으로 겉옷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시대의 이상미를 반영하는 겉옷의 형태미를 나타내기 위한 기본이 됨과 동시에 내적 자아표출의 은밀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는 이를 인식치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인체에 가장 밀접한 속옷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남·여성의 성 역할과 의복의 변화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 19세기 후반으로 두고, 첫째, 사회적 배경과 여성의 지위·역할 변화를 고찰한 후 둘째, 이를 바탕으로 각 시기에서 이상미에 따른 겉옷을 분석한 후 셋째, 이를 표현하기 위한 속옷을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속옷의 기능인 실용성, 인체의 교정과 변형, 심미성(장식성)중 이 시기의 대표적 특징인 교정과 변형에 기본을 두어 코르셋과 크리놀린, 벅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배경에 따른 여성의 역할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을 경우, 폐쇄니블한 드레스와 코르셋같이 불편한 복식이 착용되었지만 19세기 말로 갈수록 여성들의 교육 증가와 고용, 사회적 권리, 유미주의 복식 등은 여성들의 해방에 첫발을 내딛게 했다.

둘째, 이러한 배경에 따른 이상미는 가슴과 힙을 강조하며 약간의 변형을 가졌지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후프와 같은 고안물이 사라지고 속옷의 부피가 사라지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셋째, 겉옷에 따른 속옷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코르셋의 길이와 넓이는 이상미를 반영하는 겉옷의 형태에 따랐다. 크리놀린 시대보다 벅슬 시대의 코르셋은 길이가 길고 타이트하며, S자형 시대에는 가슴에 바스트 임푸르버를 대어 풍만한 가슴을 지지하였고 코르셋으로 복부를 납작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다.

스커트 후프의 길이와 넓이, 종류도 겉옷에 따라 달랐다. 크리놀린 시대인 1850년대에 스커트가 반원형 일 때는 크리놀린도 반원형이고, 1860년대에 스커트의 뒤가 퍼진 깔대기형일 때는 크리놀린도 깔때기형을 유지했다. 벅슬 시대인 1870년대 트레인이 달린 스커트일 때는, '반원형'의 크리놀린, 말총 페티코트, 긴 트레인이 달린 언더스커트를 입었고, 1880년대에는 페티코트 위에 '벅슬'이란 기구를 따

로 입어 힙을 90°로 돌출시켰다. S자형 시대에는 힙에 작은 패드를 대기도 하였다. 또한 1870년대나 S자형 시대처럼 스커트 트레인이 길거나 걸자락이 올려지는 스타일의 경우, 유난히 페티코트가 화려함을 볼 수 있다.

1850년경부터 시작한 여성 해방 운동과 여성의 지위 향상, 증가하는 스포츠, 실용성의 추구 등으로 드로워즈의 사용이 증가하고 스커트 후프와 같은 고안물이 사라졌으며, 콤비네이션, 코르셋에 부착된 서스펜더 등 속옷의 부피가 감소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스포츠 복과 기성복의 보급, 테일러 메이드의 확산 등으로 여성복은 전 시대보다는 간단해졌지만, 여전히 허리는 가늘고 스커트는 길었다. 즉, 세기의 전환점에서 여성의 해방과 의복 개혁에 대한 시도는 제한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범위를 19세기 후반으로 두어 제한된 성공이라 표현했지만, 20세기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의 해방과 의복 개혁이 되었음은 인지도된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시기를 가치 변화와 복식변화의 계기가 된 중요한 가치 있는 시기로 본다.

- 1) Anne Hollander, *Seeing through Clothes*, (N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 2) Alison Gernsheim, *Victorian & Edwardian Fashion*, (NY: Dover Publication), 1981.
- 3) Béatrice Fontanel, *Support & Seduction*, (NY: Harry N. Abrams), 1997.
- 4) Caroline Cox, *Lingerie*, (Boston, PERIPLUS), 2000.
- 5) Christopher Breward, *Foundations of Fashion*, (Leicester: Leicestershire Museum), 1981.
- 6) Elizabeth Rouge, *Understanding Fashion*, (London: Blackwell Science), 1989.
- 7) Elisabeth Ewing, *Dress & Undress*, (London: B.T. Batsford), 1978.
- 8) Gisèle D'assailly, *1000 Dessous, A History of Lingerie*, (Köln: TASCHEN), 1988.
- 9) Jane Farrell-Beck, Laura Poresky, Jennifer Paff, Cassandra Moon, *Brassieres & Women's Health from 1863-1940*, C.T.R.J. 1998, #3, pp.107-109.
- 10) James Laver, *Costume & Fashion*, (NY: Thames Hudson), 1995.
- 11) Jennifer Craik, *The Face of Fashion*, (NY: Routledge), 1994.

- 12) Koichi Tsukamoto, *The Undercover Story*, (New York : FIT), 1982.
- 13) Nancy Bradfield, *Costume in Detail*, (Boston : PLAYS Inc.), 1983.
- 14) R.Broaby-Johansen, *Body & Clothes*, (NY: Reinhold Book Co.), 1968.
- 15) R.L.SHEP, *CORSETS: A Visual History*, (CA : R.L.Shep Mendocino), p.6.
- 16) Robert Doyle, *Waisted Efforts*, (Toronto: Satorial Press Publications), 1997.
- 17) Ruth P. Rubinstein, *Dress Code*, (USA: Westview Press), 1995.